# 傘下支部動靜

## ▲協會本部

○서울국제무역박람회(KOEX) 생약분야 후원:협회는 지난 9월29일부터 10월5일간에 걸쳐 실시된 국제무역박람회에 참우약업(주)이 협회 임연학부회장) 주관업체로 참가함에 따라 본회에서는 주요 생약재 전시에 대한 출품으로서 후원 참가한바 있다.

기간중 관심있게 본 전시분야를 둘러보고 상의한 관람자는 주로 중국사람과 내국인이였으며 그수는 약4백명에 이르렀다(사진참조).

○기금운용관리심의위원회개최:협회는 지난 10월21일 今年度 추계수확기를 맞이하여 최근 주요생약재 시세동향과 유통현황을 분석하고 기금가용한도내에서의 수매품목 및 물량등을 내정한바 있으며 이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집행가능할수 있도록 현지조사 및 내용집약에 힘쓰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번 수매계획은 92년도 본회계약재배품목에 최우선을 두기로 하였다.

◇KOEX농수산물 전시관경 참우약업 주관↔한국 생약협회 후원

○신규 승인:중원군 사무소장 심창섭 충주시 공판장장 임병시, 청주시 〃 연승모, 순창군 〃 박석면 명의변경:청주시 공판장장 『정진석』을 청주시 사무소장으로

○신규소장 및 공판장장 승인식을 거행:지난 10월21일 충북지부 산하 신규승인 소장 및 공판장장 3명과 전북지부 산하 신규 공판장장 1명 등에대한 승인식을 다음과 같이 거행한 바 있다.

## ▲支部傘下

○경북 金泉市 共販場을 찾아서:협회는 지난 10월26일 이지역 生藥分野 現況취재차 김천시 공판장 허영장장(협회본부, 監事)을 訪問한바 있다.

『허영』감사는 현지 재배지도자로서 금릉군 9개마을을 포괄한 9개작목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 생약분야 봉사자로 정평이 나있는 선두 주자이기도 하였다. 『허영』공판장장은 산하에 9개 작목반과 3백13名의 會員을 확보 관리하면서 년간 5~6회에 걸친 작목반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뿐 아니라 작약, 모과 두충등 우량종자 7~8가마를 부상으로 회원에게 공급하여 재배농가에 대한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으로서 신뢰와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주변의 추앙을 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이지역 공판장으로서의 체모를 갖추어야 한다는 신념하에 우선 3백평의 부지에 건조시설 1백, 건재창고 1백50평 기타 부속시설 50평을 확보하고 생산농가의 거래품에 대하여 하시라도 가공처리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서 앞으로 조직확대와 회세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작목반장인 이상도씨에게는 전천후 트럭을 무상으로 보조하여 작목반 관리에 활성화를 기하고 있는 것도 괄목할만한 모범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그는 삼도시호, 작약, 천궁, 당귀, 백지, 방풍 등 주요생약재 10수개 풀종 1십3만3천여평을 재배하고 있으며 추계수확량은 건재로서 계삭, 3만4천근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으로 소득목표를 성취하는데는 별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었다.

# 호박(琥珀)

〈독자투고〉

일렁이는 벼이삭사이로 풀벌레소리가 정겹게 들려오는데, 가을의 농촌정경이라며는 무엇보다도 초가지붕위의 둥글고 하얀 박과 초가집 울타리에 매달려있는 누우런 호박덩이는 농촌의 소박한 인심과도 같고 토담위에도 둥그랗게 앉아있는 호박덩이를 누가 못났다고 했는가? 멋을 모르는 자연그대로의 모습에서 한없는 정취를 느끼게 한다.

못난 여자를 호박꽃에 비유하고 못난것을 호박에 비유하지만 그 속은 얼마나 우아한 멋과 맵씨를 가졌는지 달콤한 냄새마저 풍긴다.

호박하면는 호박떡, 울름도 하면 호박엿이 생각나지만 호박은 쓰임새도 많고 영양가도 많고, 약료도 있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지만 여기에 다시한번 소개하고자 한다.

호박은 박과 식물로서 영양가가 매우 높으며, 재래종인 토종과 개량종이 다 존재하고 있기도 하다. 어떤 작물은 개량종 때문에 우리 고유한 토종이 사라지고 없는데 지금도 농촌에 가면 길죽한 호박과 둥굴납작한 호박이 발록을 덮고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호박은 동인도가 원산지이고 일년생 덩굴의 풀로서 잎은 둥근 심장형(心臟形)이고 다섯갈래로 얄개 째지고, 여름철에 누우런 꽃이 자웅 동주(雌雄同株)로 피는데 과류(瓜類) 가운데서 가장 큰 열매가 열리며 종류에 따라 형상도 여러가지이며, 변종도 있다.

열매는 식용, 약용, 가축의 먹이로 쓰고있으며 잎과 순 꽃봉우리도 식용으로 사용한다.

어린 호박을 『애호박』이라 하고 익어서 잘 굳은 것을 『청동호박』이라 하지만 우리 지방에서는 누렁이 호박이라고 한다.

호박은 종류와 품종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의 토종이 최고인 것이다. 호박은 크고 둥글고 누우런 것과 파란 단호박, 빨간 관상용, 무게가 1백kg이 넘는 사료용등이 있다.

호박은 익을수록 단맛이 증가하고 당분은 소화흡수가 잘되기 때문에 위장이 약하고 마른 사람에게는 부식용과 간식용으로 좋고, 회복기의 환자에게도 좋은 역할을 한다. 호박을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기름에 조리하는 것인데 기름은 카로닌의 흡수가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동짓달에 호박을 먹으면 중풍에 안걸린다고 하는데 이는 비타민A와 C 및 B2의 효과가 있기때문이라고 한다.

호박씨는 1백g당 5백50Cal와 열량을 내고 그 지방질은 아주 훌륭한 불포화지방으로 되어있으며, 머리를 좋게하는 레시틴과 필수아미노산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호박씨는 혈압을 낮게해 준다는 연구도 있고, 조충(條虫)의 구제와 천식 치료에도 쓰여왔다고 한다. 호박씨는 볶으면 향긋한 맛이 나서 좋으며, 또한 기침이 심할때는 꿀이나 설탕에 섞어먹으면 효과가 있고 젖이 부족한 산모가 먹으면 젖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

그리고 호박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음식을 만드는데, 호박고지와 호박김치, 호박떡, 호박부침, 호박범벅, 호박순지짐이, 호박전, 호박죽, 호박지짐이, 호박찜 요즘은 호박넥타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호박꽃에 날아와서 윙굴며 날아가는 호박벌은 몸길이가 2cm이고 날개 길이가 4cm쯤 되는데, 빛이 검고 후두연의 가운데와 가슴에는 누우런빛의 긴털이 많이 나있다. 머리는 검은데 전두에는 암색의 가는 털이 나있으며 배는 둥근데 검고 긴털이 나있고 날개는 자주빛을 띤 남색이다. 이렇게 호박꽃에는 호박벌이란 것이 있어 숫꽃과 암꽃에 날아와서 윙굴기도 하여 열매를 잘 맺게 해준다.

농촌의 울타리와 담위에는 탐스러운 호박과 넝쿨이 못생겼다고 말하는 호박꽃이 아침마다 정답게 맞아주며 인사를 한다. 그 넓은 잎사귀는 맵별에 시들시들 하다가도 아침에는 활짝 피어나고 갑자기 손이지는 소나기에 우두둑 소리가 잘 나는 호박잎들…. 넓은 잎은 거칠은 털이 많아도 그 잎을 살짝 데치어 쌈을 싸먹으면 우리의 입맛을 더 돋구어 주기도 한다.

가을철 호박덩쿨을 걷어다가 소먹이로 사용해도 좋은만큼 유휴지와 빈터, 밭뚝, 산등 어느곳이나 거름이나 많이 넣어준다면 호박은 덩굴이 쭉쭉 뻗어 수없이 많이 열린다.

잘생긴것, 못생긴것, 모두가 속은 붉그스럼하게 고운 빛깔에 향긋한 냄새와 달콤한 멋을 간직한 우리고유의 호박이야말로 우리 농촌의 훈훈한 인심과 소박한 생활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느껴진다.

권 순 채

〈경북 경주군 내남면 망성리〉


(祝)

# 展 發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전라남도지부

지부장 정형모

본부이사 도공판장장 겸직 정일영

구례군 사무소장 라한주

승주군 〃 박종근

해남군 〃 (공판장장겸직)

여수시 〃 송태현 (공판장장겸직)

광양군 〃 장영철 (공판장장겸직)

순천시 〃 이상환

강진군 〃 김방제

완도군 〃 황준수

고흥군 〃 명영덕 (공판장장겸직)

장흥군 〃 최윤경 (공판장장겸직)

여천군 〃 조기문 (공판장장겸직)

영암군 〃 최원길 (공판장장겸직)

여천시 〃 곽학순 (공판장장겸직)

목포시 〃 문병희 (공판장장겸직)

신안군 〃 김동수 (공판장장겸직)

무안군 〃 홍득호 (공판장장겸직)

순천시 공판장장 서중석

1992년 10월 20일 현재